

강
효주의
서울,
장안의
소리



2022. 10. 13 Thu - 14 Fri 19:30
서울남산국악당



長

‘서울, 長安의 소리’에서
눈길을 끄는 표현이 바로 ‘장안’이다.

‘장안’은 서울의 이칭으로,
“장안 호걸”이라든가 “장안의 화제”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화려함’ 혹은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 사대문 안에서 활동하던 소리꾼들은
‘파음’이라는 공간에서 멋들어지게 소리를 주고받으며
즐거곤 했다고 하는데, 이번 공연의 타이틀에는
그와 같은 멋과 맛이 넘치는 로맨틱한 소리판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다.

- 국문학자 김기형 -

安

1. 소춘향가

구성 | 이동훈·강효주

춘향전의 전편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일부를 경기 창법에 의해 부르다하여 '소춘향가'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는 장면을 그린 사설과 춘향의 집으로 가는길을 묘사하고 있으며 경기소리 특유의 울조로 서정적인 표현이 많은 긴 사설로 만들어진 곡이다. 보통의 잡가는 장구 반주로 단조롭게 연주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해금과 함께 하여 잡가 가창에 새로운 옷을 입혔다.

2. 도화타령·양류가·사발가·베틀가

편곡 | 한충은

1930년대에 현행 <도화타령>과 사설 및 음악이 연계되는 형태가 새로 만들어졌다. 경기민요 <도화타령>은 이를 근간으로 한층 기교적이고 예술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도화(桃花)를 소재로 하여 봄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20세기 중반 벽차 이창배에 의해 음악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현행 소리는 '서울화 된' <도화타령>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양류가>는 '양류(楊柳)'의 의미가 버드나무를 뜻하기에 이 노래를 우리말로로는 <버들노래>라고도 하며 19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서울 경기민요이다.

<사발가(沙鉢歌)>는 1910년대 서울 지역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로서 사설의 내용은 사랑하던 사람과의 연정(戀情)과 이별,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담고 있다.

<베틀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녀자(婦女子)들의 노작가(勞作歌)에서 속가(俗歌)로 보편화된 곡으로 베를 짜면서 그 과정을 노래한 대표적인 부요(婦謠)이다.

봉건시대의 여인들이 베를 짜는 노동의 고달픔을 잊기 위하여 베틀에 앉아 부른 노동요가 통속화 되어졌다. 굿거리장단이 공통점인 네 곡을 기존의 악기편성과 다르게 국악기와 콘트라베이스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구성으로 편곡된 곡이다.

3. 1930 신민요 연곡

편곡 | 한충은

- 꽃을 잡고
- 능수버들
- 가벼운 인조견을

신민요는 '10세기 말 이후 일반인들 및 잡가 담당층에 의해 새로 만들어져 가창된 민요풍의 노래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특정인의 작곡과 작사를 통해 만들어진 민요풍의 대중가요'를 지칭한다.

1930년대 신민요 중 선우일선의 '꽃을잡고'와 '능수버들', 유선원의 '가벼운 인조견을' 이 세 곡을 연곡으로 구성하였다. 경기소리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강효주만의 소리에 오롯이 집중되도록 악기편성을 최소화하여 원곡을 재해석하여 편곡했다.

4. 연자가

편곡 | 김백찬

경기12잡가 중 '제비가'라는 곡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곡명으로는 연자가(鵞子歌)라고도 한다. 춘향전의 '긴 사랑가 대목'과 흥부전의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대목'에서 빌려온 사설을 서울지방 잡가의 창법으로 부르는 곡이다. 기존의 장구 반주로만 연행되던 연주형태가 아닌, 생황 및 25현 가야금 등의 악기편성이 더해진 편곡에 춤과 소리가 만나 앞서서 가창하는 좌창의 정적인 음악이 입체적으로 재해석 되어 선보여진다.

5. 휘모리잡가 中 바위타령·병정타령

편곡 | 김백찬

휘모리잡가는 사설을 휘몰아가듯 빠르게 주어 섬기는 것이 특징이며 그 중에서도 <바위타령>은 경기민요의 대표곡인 ‘노랫가락’의 선율을 노래의 앞과 뒷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서울 새문안에 거지바위·문턱바위 등과 동교(東郊)의 북바위 등을 비롯하여 동소문 밖, 자하문 밖, 백운대·승갯절·필운대·남산·남문 밖 등 서울지방의 여러 바위들이 사설에서 먼저 등장한다. 이어 고양·양화·김포·인천·시흥·과천·수원·광주·이천·여주 등 경기도 일대의 바위를 열거한다. 그 다음 황해도의 금천·연안·서흥·동설령·황주를 들고 평안도로 넘어가 평양의 장경문안·서문안 그리고 순안·숙천 등지의 바위까지 등장한다. 마무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경퇴절·서강 등지의 바위를 들어 이러한 바위들이 청대콩처럼 밥에 들어 있다고 묘사한다. 마무리는 그 밥을 먹고 누를 밥을 먹으려고 슬뚜껍을 여니 해태 한 쌍이 영금영금 기어 나온다는 과장된 노랫말이 해학적이다.

<병정타령>은 민족항일기의 경서도(京西道) 명창 박춘재(朴春載)에 의하면 구한말에 서울 풀무골(冶洞)의 소리꾼 이현익(李鉉翼)이 지은 곡이라고 한다. 가사의 내용은 신식군대의 조련(操鍊)과 단발령 선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노랫말에 장구반주 하나로만 연주되던 휘몰이 잡가 두 곡이 편곡에 의해 편성 악기가 늘고 구성이 더해져 가사 전달의 재미있는 요소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잣은산타령·개고리타령

구성 | 한충은·강효주·전계열

산타령은 본래 서서 가창한다하여 선소리 또는 입창이라 한다. 서울·경기 지역과 서도지방에서 불리는 잡가 중 서서 소리하는 선소리의 대표곡으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에 지정되어있다. 종류는 경기(京畿)산타령과 서도(西道)산타령이 있고, 각각 <놀랑>·<앞산타령>·<뒷산타령>·<잣은산타령>으로 되어 있다. <잣은산타령>은 경기에서 <도라지타령>이라 하고, 서도에서는 <경발림> 또는 <경사거리>라고도 한다.

오늘 무대에서는 경기입창(京畿立唱)의 넷째 곡명인 일명 ‘도라지타령’과 ‘개고리타령’을 선보인다. 잣은 산타령 원곡의 매력 중 하나가 도입부는 느리게 부르다가 빠르게 몰아가는 자진모리장단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하여 재구성 하였다.

7. 노랫가락·청춘가·창부타령

편곡 | 김백찬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은 무가에서 파생되어 세속화된 곡으로 경기민요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무가의 사설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사랑, 이별, 그리움, 일상, 한탄 등의 순수한 민요사설을 주로 부른다. 청춘가는 유절형식이기는 하지만 후렴구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사설의 대부분이 청춘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곡들은 한 절만 들어봐도 소리꾼의 기량을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경기소리 특유의 표현과 섬세함이 백미이다.



강효주
Kang Hyo-joo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 (사)한국정악원 이사로 활동 중이며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회 경기국악제 학생부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KBS 서울국악대경연 민요부문 장원, MBC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민요부 장원에 이어 2007년 KBS 국악대상 민요부문 최연소 수상과 제17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까지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대표적인 경기 소리꾼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20여년간 재직하며 소리극, 음악극을 비롯하여 국내외 공연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고, 2007년 첫 독창회 <Fascination>을 시작으로

다수의 독창회를 꾸준히 선보이며 전통창법의 소리를 비롯하여 전통에 기반한 소리의 입체화를 실현, 기존 경기소리 무대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와 현대적인 해석, 탁월한 창의력으로 극찬을 받으며 경기소리 매력을 극대화하는 무대를 만들어왔다.

또한, 공연 활동과 동시에 [강효주가 부른 경·서도 소리], [강효주 경기 12잡가] 등의 음반을 발매하였고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경기소리 전공자로서는 최초의 전임교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임용되어 교육자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 시킨 강효주는 현재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전통성악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후학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해금 이동훈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교수
제9회 전국 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



대금·소금 한충은^{13일}

KBS 국악관현악단 부수석
국악팝스오케스트라 '여민' 악장



가야금 연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졸업
제43회 난계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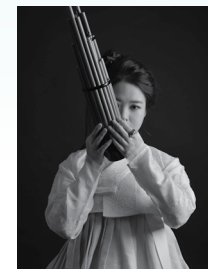
콘트라베이스 김지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및 피바디 음악대학 석사졸업
예원학교·동덕여대·성신여대 강사역임



타악 전계열

추계예술대학교 졸업
제15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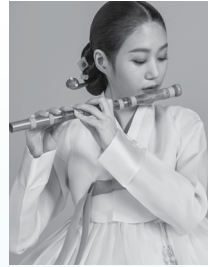
생황 김태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 졸업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역임



거문고 김소연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 박사(D.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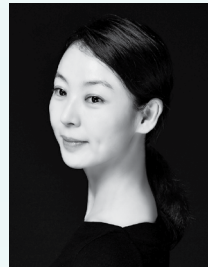
소금 김가현 14일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충주시립우륵국악단 비상임 단원



대금 김가현 14일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단원



무용 백미진

국립국악원 무용단 수석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이수자

핫소리

천혜인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조유진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제현정 | 단국대학교 국악과 재학
김지민 | 한양대학교 국악과 재학

이유림 | 한양대학교 국악과 재학
김주연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재학
김효슬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재학
김민지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재학



서울남산국악당

실장 엄국천
기획홍보팀 이유정^{팀장} 박예은 유예진
 김혜경 서현재
무대기술팀 김성수^{팀장} 이성현 박영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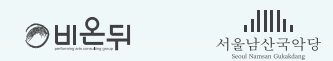
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조용태
사업부문 대표 김지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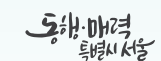
공연예술컨설팅그룹 비온뒤

기획 & 컨설팅 김성주
기획운영 정지은

주최 · 주관



후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동창회

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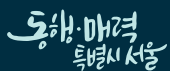
손흥희(에스피뮤직)



의상협찬

이서운한복
C-ZANN E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2022. 10. 13 Thu - 14 Fri 19:30
서울남산국악당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동창회